

‘K-e스포츠산업’ 호남대가 이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e스포츠산업은 2022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한화 2조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신성장동력이다. 글로벌 e스포츠 시청자는 올해 5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 향후 아시아인 게임 정식종목 채택, 2024년 파리올림픽 종목 채택 논의 등 e스포츠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선정 ‘4차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이자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e스포츠 중추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큰 포부를 품고 지난 2020년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e스포츠산업학과(학과장 정연철)를 개설했다. 이어 올해 초 대학 최초로 e스포츠구단 ‘수리부엉이’(Eagle Owls)를 창단하며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꾀를 쓰고 있다.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는 프로리그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수 육성과는 차별화된 ‘e스포츠게이머’, ‘메니지먼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e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e스포츠 분야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표준 교육과정 정립과 교재개발, e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아마추어 리그 설계 운영, 국제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e스포츠 경기종목 발굴을 위한 산학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메타버스 게임사회 연구, 스포츠비전을 결합한 체계적인 e스포츠선수 훈련 시스템 구축 등의 광폭 행보를 통해 e스포츠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창단한 대학 아마추어 구단 ‘수리부엉이’는 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3개 팀을 운영하는 한편 ‘호남대 아레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교과 학습모델로도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학



e스포츠 대회

생들은 ‘수리부엉이’ 구단 운영을 통해 구단 운영 실무와 e스포츠 전문 채널 운영, 구단 홍보 전략 수립 등 e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역량을 쌓으며 개인인과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스포츠산업학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5개 대회(별망전, 켈린지대회, 호남제주권 U리그, 광주구청장배 대회, 고교최강전)를 개최하며 자체 스크린 등을 통한 온라인

경기 중계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롤 고교최강전’에는 약 100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e스포츠의 열기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지난 6월 3일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 e스포츠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광주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e스포츠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e스포츠산업학과 개설
대학 구단 ‘수리부엉이’ 창단
실무중심 교육시스템 구축
교육원 운영...대학 국제 교류전도

이와 함께 광주시는 e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며 e스포츠 핵심도시 광주를 목표로 2020년 12월 광주이스포츠산업경기장, 오는 8월 아시아이스포츠산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운영은 호남대학교가 맡는다. 향후 3년간 이스포츠 게이머 양성 e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게임교실 운영, 게임 과몰입 방지 등 e스포츠와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e스포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장인들의 동호회 활동, 중장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 속 놀이의 이스포츠 전환 프로그램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 세대를 불문한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각오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 함께 이겨냅시다

광주대, 재활용품으로 화분 만들어 학교 앞 상인들에 선물



광주대학교(총장 김형중) 학생들이 최근 코로나 19 극복 응원과 환경오염 캠페인 메시지를 담은 재활용품 화분을 만들어 학교 앞 상인들에게 선물했다. <사진>

장미와 마가렛 등의 꽃이 심겨 있는 500개의 재활용품 화분은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어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셨나요?’ 등의 메시지가 담겨 학교 앞 상점과 교내 임대업체 83곳에 전달됐다.

이번에 활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은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 커피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제품을 수거해 마련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농업교육원 ‘찾아가는 체험학습’

전남대 농업실습교육원(원장 이지웅)은 최근 담양군 월산초등학교를 찾아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농업실습교육원은 ‘숲 속 동물과 함께하는 ASMR’, ‘식물의 사’, ‘토양 속 생태계 여행’, ‘버 재배 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전남대 제공>

동강대 경찰경호과-한국탐정협 업무협약

내년부터 탐정과정 정규수업

동강대학교가 한국탐정협회와 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강대는 최근 교내 학술정보원 세종홀에서 경찰경호과-한국탐정협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강대 이민숙 총장과 경찰경호과 나현태·양정원 교수, 평생교육처 조남철 처장을 비롯해 탐정협회 하금석 회장과 정경채 교수, 경찰청 박장남 치안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동강대는 앞으로 탐정분야 학술연구와 교육개발, 대학-협회 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문대학 혁신지원 ‘후진학선도형’ 사업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동강대 평생교육처는 올 1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민간조사·사실탐정’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찰경호과는 2022학년도부터 호남 최초로 탐정 과정을 정규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선생님도 학생들도 “토닥토닥 힘내요”

전남교육청, 심리불안 치유·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남교육청이 전체 학교 전면 등교에 발맞춰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전남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 시작 뒤 5월까지 3개월 간 지역 내 학교 현장에서 자해 시도 등 69건, 교권침해 40건, 학교폭력 789건, 아동학대 98건 등의 심리·정서 관련 사안이 발생했다.

2021학년도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미 이

들 4개 항목의 사안 발생 건수(996건)가 지난해 1년 전체 발생 건수(1892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53%)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이 악화한데다 사이버 폭력과 가정 내 아동학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

행하기로 했다. 학생 심리·정서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자살예방 문화 조성 ▲예방활동 강화 ▲위기학생 상담·치료 지원 ▲정신건강 전문가 연계 상담·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해 교육공동체 간 관계성과 사회성이 조속히 회복될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똥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